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7월 12일 연중 제15 주일

어릴 적 툭하면 사고를 치던 개구쟁이 시절, 어머니께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 "말 좀 들어라!"였다. 그 시절에는 그 소리가 왜 그리도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렸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나니, 문득문득 "그때 어머니 말씀을 좀 잘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곤 한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가 가슴 한구석이 찔렸던 이유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독특한 농사법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부들은 먼저 밭을 정성껏 갈아엎은 뒤에 씨를 뿌리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은 먼저 씨를 사방에 흩뿌려 놓은 다음에 밭을 갈았다. 그러다 보니 씨앗이 엉뚱한 데로 날아갔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딱딱한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얕어서 속이 훤히 보이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거친 잡초가 무성한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졌다. 요즘의 현대적인 경영 마인드나 효율성의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빵점짜리' 농사법이다. '저렇게 아까운 씨앗을 길바닥에 버리면서까지 왜 뿌릴까?' 하지만 복음 속 농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 좋은 땅에 씨 뿌리고 있음을 확신한다.

예수님은 이 씨앗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네 가지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신다. 길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 돌밭: 처음에는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힘들거나 손해를 보면 금방 포기하는 사람. 가시덤불: 세상 걱정과 돈 욕심, 스트레스 때문에 말씀이 자랄 틈이 없는 사람. 좋은 땅: 말씀을 귀담아듣고, 마음 깊이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 '좋은 땅'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서른 배, 예순 배, 무려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니 실로 놀랍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낭비된 씨앗들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결국 찾아낼 '희망'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져 버려지는 씨앗이 훨씬 더 많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신다. 좋은 땅이 가진 그 위대한 잠재력을 믿으시기 때문이다.

성서학자들은 이 비유가 당시 예수님이 겪고 계셨던 쓸쓸한 처지를 대변한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활동 초기에는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으려 수천 명이 구름처럼 몰려왔지만, 시간이 흐르고 십자가의 길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하나 둘 곁을 떠났다.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곁에 남은 건 고작 열 두 제자와 몇몇 여인들뿐이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명백한 '실패'였다. 누군가가 "예수님, 이제 그만 접으시죠, 사람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눈앞의 쓸쓸한 실패보다, 겨우 몇 안 되는 좋은 땅이 앞으로 전 세계에 맺게 될 무수한 열매들을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성당 공동체를 보며 걱정 섞인 목소리가 많다. 신자 수는 눈에 띄게 줄고 있고, 성당에는 젊은이들보다 어르신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 본당의 미래가 어둡다"며 한숨을 쉰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세상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널려 있지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좋은 땅'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 좋은 땅은 우리의 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을 수도 있다.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씨를 뿌리는 '농부의 손'일 뿐이라는 점이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지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내 눈앞에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계속해서 따뜻한 복음의 씨앗을 건네는 것,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하여 결국 끝까지 '희망'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뿌린 작은 씨앗 하나도 결코 허투루 버리지 않으신다.

"말 좀 들어라."가 귓가에 맴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얘야, 내 말을 좀 들어주련? 그 귀한 말씀을 네 마음에 소중히 받아들여서, 네가 나의 좋은 땅이 되어주지 않겠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서른 배, 예순 배, 또 백 배의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였으면 한다.

	시간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7/ 12	9 시	현재영(바오로)	이정명(세실리아)	현동숙(소피아)		박춘자(아가다)
	11 시	정형식(저스틴)	서원복(로사리아)	최혜숙(젬마)		이 영(레오) 이관숙(마리아)
26 년 7/ 19	9시	이신애(율리안나)	김주영(이냐시오)	백진주(에밀리아나)		이춘자(희순루시아)
	11시	황정순(크리스틴)	이향례(자넷)	박만석(마뉴엘)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공 동 체 소 식

◎모니카회, 이벽 요한회 연례 합동 야유회
오늘 12일(일) 11시부터 아래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작년과는 장소가 다릅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신입회원의 입회를 환영합니다.
▸ **장소: Allison Woods #1**
Milwaukee Ave & Winkleman Rd,
Northbrook, IL 60062

◎꼬미시움
▸일시: 7월19일(일) 오후12시 30분 신관 1호

◎요셉회 성모회, 성령기도회 합동 야유회
3개단체의 회원들을 초대합니다. 음식과 음료, 상품이 준비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7월26일(일) 9시 미사 후
▸장소: Labagh Shelter #2(Foster & Cicero)

◎2026 년 어린이 복사단 피정안내
▸일시: 8 월 22 일 오전 10 시~오후 4 시 (본당)
▸대상: 복사단 어린이 및 청소년
복사단원들의 신앙 성장과 전례 봉사의 의미를 배우는 1 일 피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전 신청바랍니다.
▸문의: 표혜진(kmcckoreanschool@gmail.com)

◎2026-2027 주일학교(CCD), 한국학교 학생모집
시카고 순교자 천주교회에서는 신앙과 한국어, 한국문화를 함께 배울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주일학교(CCD):
신앙교육 및 성사준비, 다양한 체험활동들
▸한국학교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역사교육, 다양한 체험활동들
▸일정: 2026 년 9 월 13 일~2027 년 5 월 2 일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9:20~10:30(CCD)
오후 12:30~2:30(한국학교)
▸대상: 만 5 세~8 학년
자녀들이 신앙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및 등록: 성당 사무실 or 표혜진
(kmcckoreanschool@gmail.com)

◎26 한국학교 골프대회 결산보고
본대회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로 아래와 같이 한국학교 기금을 전달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입: $31,747.00 ▪지출: $11,472.49
▪잔액(수익금): $20,274.51
✶후원해주신분: 김주영, 해태 USA,
이기림(Lee painiting)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임평수(스테파노), 지영킴(헬레나), 정인선(요한), 박마리아, 김태수(토마스), 박경철(레오), 함순희(율리안나), 탐 박, 모기화(카타리나), 정행자(세실리아), 한호자(모니카), 배석기(노엘), 이명열(율리안나), 김정욱(에스더), 안성애(안나) 김영일(미카엘), 고경인(요한), 강정환(유스티노),박종헌(야고보), 오명희(마리아), 전진숙(아네스), 이문규(라파엘),김정우(바오로), 박순연(마리아), 김홍숙(헬레나), 김대용(야고보),황정융(보스코), 정유하(시메온), 이충구(안토니오), 박진우(마이클), 강젬마 김명수(토마스), 허 관(스테파노), 심재국(베드로), 김클로틸다, 이춘재(엘리사벳), 한명수(아오스딩 마리아), 김동진(가롤로), 강정자(수산나), 이향례(자넷), 정찬일(안토니오), 정명례(소피아), 이관복(바오로), 박정환(라파엘)

ㅇ교무금 $ 8,000.00 ㅇ주일헌금 $ 1,856.00
ㅇ감사헌금 $ 550.00 ㅇ토요헌금 $ 95.00
ㅇ한국학교 골프대회 $ 24,413.00

▪감사헌금: 김영일(미카엘), 이문규(라파엘), 박순연(마리아)

『2026년 7월 12일 미사 지향 』

▪ 생미사
김앤디(안드레아), 이다현(마리안나), 박태극(시몬), 박하은, 주영필과 그의 어머니, 엄광식(토마스), 유명주(마가렛), 차영숙(크리스티나), 윤영란(도로테아), 안성애(안나)

▪연미사
도복순(안나), 도상기(이냐시오), 이긍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꿀라따), 지정숙(헬렌), 주영선(소피아), 이인식(안드레아), 음규진(요셉), 박민아(엘리사벳), 이선애(마틸다), 김성애(마리안나), 코로나로 돌아가신 영혼들

7월 11일(토): 제임즈가정, 노엘 리 **(생미사)**
7월 14일(화): 최경애(데레사) **(생미사)**
김성애(마리안나), 김선경(임마꿀라따) **(연미사)**
7월 15일(수): 윌리엄 버지스 **(연미사)**
7월 16일(목): 차신부님(Fr. Charles,J Carolan) **(연미사)**
7월 17일(금):
이복례(마리아), 주제니퍼 **(생미사)**
이긍구(마이클) **(연미사)**